

IFRS17 도입준비위원회 Kick-off 회의 모두 발언

※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, 실제 발언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- 우선,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Kick-off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
- IASB는 IFRS17 기준서 최종안을 5월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난해 '21년으로 시행시기를 사실상 확정하였음
 - 오랜기간 논의되어 왔던 IFRS17의 시행이 구체화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
 - 앞으로 우리 보험업권의 가장 큰 화두는 IFRS17 시행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적 준비 및 건전성 강화가 될 것이라 생각
- IFRS17의 핵심 내용은 보험부채를 계약시점의 '원가'가 아닌 매 결산시점의 '시가(공정가치)'로 평가하는 것임
 -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나타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
 - 또한, 상품만기가 장기인 보험상품의 특성을 감안할 때, 보험사 경영진과 주주에게 '장기적인 회사가치'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음
 - 보다 근본적으로는 IFRS17이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혁을 유발하여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

- 그러나, 기업의 언어인 회계기준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만큼 보험업계의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
 -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여, 과거 판매된 고금리 보증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자본 확충이 불가피할 전망
 - 장기적으로는 시장금리 변화가 즉각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자산·부채·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하므로, 이에 대비한 자산-부채 관리의 중요성 증대
 - 재무적 차원 뿐만 아니라, 새로운 회계시스템과 상품개발 프로세스 구축 등 IFRS17 연착륙을 위한 과제가 산적
- 당국 차원에서도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(LAT) 등을 활용하여 보험 회사가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
 - 뿐만 아니라 지급여력제도 등 보험권의 기존 건전성 감독제도도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개편해야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이슈를 검토할 필요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IFRS17 도입과 관련하여 IFRS17 기준서가 확정되면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,
 - 그 과정에서 보험업계와 민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도록 하여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혀 왔음*

* '16.6월, 보험업권 IFRS17 도입 관련 금요회시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

- **IFRS17 기준서 확정 일정이 발표된 만큼, 이제 시장과의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판단되어 오늘 IFRS17 도입준비위원회를 발족**
 - IFRS17 도입준비위원회는 손보험사 CEO와 민간 전문가, 보험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여,
 -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방안 검토·심의는 물론, IFRS17과 관련된 폭 넓은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당국과 시장이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
- 향후 도입준비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
 - 감독제도 또한 도입준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, 보험회사가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
- **IFRS17 시행까지 남은 3.5년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충분한 기간이 될 수 있음**
 - 보험업계가 이익 유보 등 자본 확충 노력, 리스크관리 강화, 회계 시스템 구축 등 회사차원의 준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드림
 - 민간 전문가 여러분과 보험 유관기관에게도 다방면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
- IFRS17 도입준비위원회의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